

# 통상 629 호 사건 보고서: 원양참치연승어선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선원인권침해

2020.07.17.

API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시민환경연구소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Friends of the Ear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목차

1. 여는 글 .....	1
2. 사건 요약.....	3
2.1. 상어 불법 조업 .....	3
2.2. 멸종위기종 고래 혼획 .....	3
2.3. 불법 어획물 환적 .....	3
2.4. 인권침해.....	4
3. IUU 어업 및 어선원 인권 침해 행위 분석.....	4
3.1. WCPFC 상어 보존관리조치 2010-07(CMM 2010-07) .....	4
3.2. WCPFC 상어 보존관리조치 2014-05 - 다랑어 및 새치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연승 어업에 관한 조치 (CMM 2014-05).....	5
3.3. WCPFC 환적 규제 보존관리조치 2009-06 (CMM 2009-06).....	5
3.4. WCPFC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안 2018-01 (Resolution 2018-01).....	6
3.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6
3.6. WHO-ILO-IMO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IMGS) .....	7
4. 결론 및 권고사항.....	7
부록: APIL's Note on Long Xing 629 Case.....	8
Three deaths .....	8
Human Trafficking .....	9
IUU including shark finning.....	12
Another death in Busan.....	15

## 1. 여는 글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은 해양환경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01년에 IUU 어업의 위협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불법어업방지계획(IPOA-IUU)을 발표하였다.<sup>1</sup> 이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IUU어업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룽싱 629호(Longxing 629)는 중국 국적의 참치연승어선이다. 룽싱 629호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3개월 여 동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수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최근,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이하 어필)은 해당 어선의 IUU 어업 행위에 대해 보고하였다(부록 참조).

중국원양어선의 IUU어업 행위는 세계 원양어업계와 국제사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중국 원양어선들의 IUU어업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sup>2</sup> 중국 원양어업 선단의 조업 규모는 전세계의 원양어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sup>3</sup> 전세계 원양어업의 커다란 부분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원양어선들이 잡는 주요 어종은 참치, 오징어, 고등어, 꽁치, 남극 크릴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원양어선의 IUU어업 사건에 대해, 중국과 직접 당사국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국, 국제수산기구, 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정부, 시민단체 등 국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수산기구는 원양어선의 IUU 어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국제수산기구는 원양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함께 만든 국제기구이다. 이 중, WCPFC는 중서부 태평양 관할 수역에 서식하는 다랑어를 포함한 고도회유성어족<sup>4</sup>을 보전하고 관리한다. WCPFC에는 “IUU어업 어선 목록 작성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9-07)”가 있는데, 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IUU 어선 목록을 게시한다. IUU 어선으로 지목된 어선은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EU는 지역수산기구가 지정한 IUU 어선들을 자동적으로 EU의 IUU 어선 목록에 게시하도록 한다.<sup>5</sup>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미국은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국제적으로 IUU 어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EU는 비회원국이 자국 선박의 IUU 어업 행위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예비불법어업국(Yellow card)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국가의 조치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EU는 해당 국가를 불법어업국(Red card)으로 지정한다. 해당 불법어업국은 더 이상 EU 시장에 자국의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sup>6</sup> EU는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 주체로서 2018년 한 해 동안 265.3억 유

1 FAO (200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Rome, FAO.

2 Shen, Huihui, and Shuolin Huang. “China’s Policies and Practice on Combatting IUU in Distant Water Fisheries.” Aquaculture and Fisheries, no. January 2019, Elsevier, 2020, pp. 0–1, doi:10.1016/j.aaf.2020.03.002.

3 Figure 2, 2016–2017 Amanda Shaver and Sally Yozell, 2019, “Shining a Light: The Need for Transparency across Distant Water Fishing”, Resource and Climate Report, Environmental Security Program, Stimson.

4 Annex 1 Highly Migratory Speci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5 (29),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847/93, (EC) No 1936/2001 and (EC) No 601/2004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1093/94 and (EC) No 1447/1999

6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OCEANA, the Pew Charitable Trusts & World Wildlife Fund (WWF), 2016, Issue brief – April 2016, The EU

로 규모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약 18억 유로 규모였다.<sup>7</sup> 중국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EU에 수산물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중국 수산물 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도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8</sup> 2년마다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IUU 어업국 지정 대상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2019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된 IUU어업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sup>9</sup>

이러한 수출국 규제조치는 실제로 수산물 수출국의 법 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국의 원양어업관련 법제도 개선을 예로 들 수 있다. 2013년 EU와 미국이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국내법개정, 조업감시 체제 개선 및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 (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Network) 가입 등 원양 어업 규범 강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성과에 따라 경고 조치가 철회되었다. 2019년에 한국은 한번 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당했지만, 제도를 더욱 개선하였고, 결국 미국은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sup>10</sup>

이번 통상 629 사건 또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중국이 IUU 어업 근절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WCPFC, EU, 미국 등이 해당 선박을 IUU 어선 목록에 등재하거나 기국인 중국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지향하는 국제 사회의 합치된 목소리를 중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당국도 IUU 어업 근절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제13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2016-2020) 계획을 통해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에의 의지를 표명해온 바 있다.<sup>11</sup> 국제 사회가 지금 함께 행동한다면 이번 사건이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 어업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통상 629호 사건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사건 내용은 어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어필은 통상 629호에서 조업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과 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및 사진자료들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기록했다. 또한, 사건관련 국제 법규인 WCPFC 보존관리조치(이하 CMM, Conservation Management Measure)와 결의안(Resolution),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그리고 선박용 국제의료지침(IMGS)에 위반되는 불법 및 IUU어업 행위를 밝혀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았다.

---

IUU Regulation carding process: A review of European Commission carding decisions

7 The EU fish market 2019 edition.

8 Implementation of Title IV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 (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January 2009

9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releases-report-congress-identifying-three-nations-reported-iuu-fishing> (accessed on 2020.06.29)

10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releases-report-congress-identifying-three-nations-reported-iuu-fishing> (accessed on 2020.06.29)

11 FAO, 2018,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Part 4, Box 31

## 2. 사건 요약

롱싱 629호 사건 내용은 사건의 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그들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부록 참조).

### 2.1. 상어 불법 조업

롱싱 629호는 상어를 의도적으로 대량 포획했는데, 상어줄(shark line)을 일 평균 20마리 이상의 상어를 포획한 것으로 보고된다. 선원들이 장대를 이용해 상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내어 취하고, 나머지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다시 버리는 불법적 삭스핀 조업(shark finning)이 이루어졌다. 선원들은 이렇게 채취한 지느러미를 말리고 포장해 냉장보관하는 일을 했다(Fig. 9, Fig. 10).

증언한 선원들이 하선할 당시 롱싱 629호는 최소 720kg의 상어 지느러미를 적재하고 있었다. 사진과 영상자료에 근거하면, 선원들은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Fig. 5), 백상아리(*Carcharodon Carcharias*, Fig. 7), 홍살귀상어(*Sphyrna lewini*, Fig. 6)를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상아리와 홍살귀상어는 WCPFC가 부수어획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Key Sharks)들이다.<sup>12</sup> 또한, 이들은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들이다.

### 2.2. 멸종위기종 고래 혼획

선원들은 범고래불이(*Pseudorca crassidens*, Fig. 8) 등 혼획된 해양포유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해당 종 또한 CITES 제2부속서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물이다. 선원들은 범고래불이의 이빨을 뽑아 기념품으로 갖고, 뇌와 생식기를 적출하여 취식하였다.

### 2.3. 불법 어획물 환적

롱싱 629호가 어획한 상어지느러미들은 작은 보트를 이용해 롱싱 629호에서 같은 대련 선사의 자매 선박들로<sup>13</sup> 옮겨 실어졌다. 또한, 롱싱 629호는 조업기간 중 최소 네 번, Lady Tuna와 Sei Yu를 포함한 여러 운반선과 환적을 하였다. 관련 정부 기관이나 WCPFC 사무국에 해당 환적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한국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롱싱 629호와 Sei Yu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의 기간동안 2019년 11월 25일에 한차례 어획물을 환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선원들의 증언과는 달리, 상어와 상어지느러미는 환적 보고 내용에 포함 되어있지 않았다.

12 CMM 2010-07 paragraph 4: The key shark species are blue shark, silky shark, oceanic whitetip shark, mako sharks, and thresher sharks, porbeagle shark (south of 20S, until biological data shows this or another geographic limit to be appropriate) and hammerhead sharks (winghead, scalloped, great, and smooth).

13 Long Xing 806, Long Xing 805, Long Xing 630, Long Xing 802, Long Xing 605, Tian Yu 8를 포함한 최소 11척의 선박



## 2.4. 인권침해

통싱 629호에서 조업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네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다. 세 명은 통싱 629호 및 자매 선박의 선상에서 사망했고, 한 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뒤 사망했다. 선상에서 사망한 세명의 시신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시신 송환마저 불가능했다.

선원 사망 사건뿐 아니라 통싱 629호에서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 선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8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최대 이를 동안 휴식 없이 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애초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평균 11.4%(500달러)만 지급받았다. 14명 중 5명은 단 3.1%(120달러)만 지급받았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해수를 걸러 만든 염수를 마셔야 했다. 중국인 선원들은 병에 담긴 물을 마신 것과 는 대조적이다. 또한, 부선장과 일부 중국인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폭행했다. 특히, 부선장은 거의 매일 일부 선원을 폭행했다. 게다가, 선원들은 13개월 동안 하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통싱 629호는 여러 차례의 해상 환적을 통해서 어획물을 어창에서 비워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입항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또한, 선원과 송출업체 사이의 계약서는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가 병기되어 있었으나, 사망보험금 액수가 세배나 차이 나는 문제도 있었다.

## 3. IUU 어업 및 어선원 인권 침해 행위 분석

통싱 629호가 WCPFC 수역에서 범한 불법 어업 행위는, 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WCPFC의 법적 구속성이 있는 보존 조치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WCPFC가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구체적 위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1. WCPFC 상어 보존관리조치 2010-07(CMM 2010-07)

CMM 2010-07은 상어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다. 통싱 629호는 이 조치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이 이 조치를 준수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통싱 629호는 상어가 목표종이 아닌 참치 연승 어선으로 CMM 2010-07 10항에 따라 생존 상태의 상어를 혼획한 경우 방류해야 하며 식용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또한 사망 상태로 어획한 상어라도 6항에 따라 상어의 몸통 전체를 사용해야하나 지느러미만 의도적으로 잘라 가공 후 따로 보관하였다.<sup>15</sup> 7항은 첫 양륙시까지 상어 전체 무게의 5%를 초과하는 지느러미의 선상 보유를 금하며 지느러미에 해당하는 도체를 함께 양륙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16</sup> 이

14 CMM 2010-07 10항: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참여 속령(이하 협약국)은 상어를 목표종으로 하지 않는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어업에 있어서, 살아있는 상어 혼획의 경우 방류 및 식용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CMM 2010-07 6항: 협약국은 조업인이 모든 상어 전몸통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한다. 전체 사용이라함은 머리, 내장, 표피를 제외한 상어의 모든 부분을 양륙 혹은 환적시까지 어선상에 보유해야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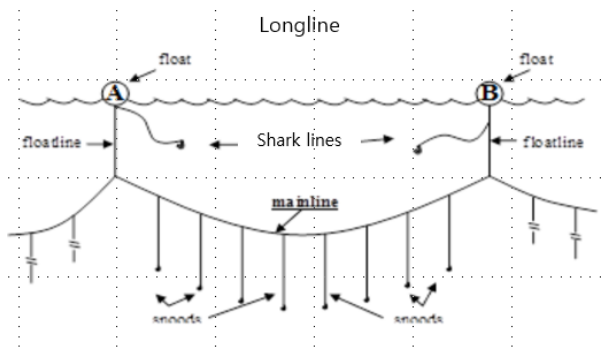
16 CMM 2010-07 7항: 협약국은 어선이 첫 번째 양륙시까지 상어 전체 무게의 5%가 넘는 지느러미를 선상에 보유하지 않도록 의무화 해야한다. 현재 첫 번째 양륙시 상어 지느러미와 도체를 같이 하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협약국은 증명제도, 읍저버 모니터링 및 기타 적절한 조치 등 5% 비율 준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혹은 협약국은 어선이 지느러미가 상어

에 따라 선상에 약 720kg에 달하는 상어지느러미를 (45kg 상자 16개) 따로 보관한 행위는 명백한 위배 행위이다. 한편 통상 629호가 CMM 2010-07에 위배되어 어획한 지느러미를 선상 보관, 환적, 양륙, 거래한 정황이 파악되는데 이는 해당 조치 9항을 위반한 것이다.<sup>17</sup>

### 3.2. WCPFC 상어 보존관리조치 2014-05 - 다랑어 및 새치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연승 어업에 관한 조치 (CMM 2014-05)

통상 629호는 상어줄 등 상어 어획용 전문 어구를 사용하여 다량의 상어를 의도적으로 포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치잡이용 줄과는 그 두께 및 길이에 있어 구별되는 상어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Fig. 1). 이와 같은 행위는, 참치연승선의 상어줄 및 상어 어획용 어구 사용을 명백히 금하고 있는 CMM 2014-05에 대한 위반이다.<sup>18</sup>

Fig. 1: CMM 2014-05에 의해 사용 금지된 상어 줄 모식도



### 3.3. WCPFC 환적 규제 보존관리조치 2009-06 (CMM 2009-06)

통상 629호는 13개월의 조업기간 중, Dalian Ocean Co Ltd. 소유의 자매 선박들과 Lady Tuna호 및 Sei Yu호를 포함한 운반선과 여러 번 해상 환적을 하였다. 통상 629호는 WCPFC 협약 수역에서 어획한 상어 지느러미를 환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CMM 2009-06에 부합하는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중국과 WCPFC는 2019년 3월 ~ 2020년 4월 동안 통상 629호를 포함한 대련선사의 자매선박들이 해상 환적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 기록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상 629호가 CMM 2009-06에서 명시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0항에 따르면 환적시에는 적재물을 넘긴 선박과 받은 선박 모두 환적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sup>19</sup> 보고 내용에는 제1 부속서가 정한 11가지

도체에 부착된 상태로 양륙하거나, 지느러미가 해당 도체 없이는 양륙되지 않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17 CMM 2010-07 9항: 협약국은 현 CMM에 위배하여 채취한 지느러미를 어선이 선상 보관, 환적, 양륙, 거래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CMM 2014-05: 1. 협약국은 어선이 아래 사항 중 최소한 하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a. 와이어 트레이스(wire trace)를 브랜치 라인(가짓 줄) 혹은 리더로 사용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 b. 부상 연승줄 혹은 선낚시줄과 직접 연결된 브랜치 라인, 일명 상어줄(shark lines)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CMM 2009-06 10항: 적재물을 넘긴 선박과 받은 선박은 협약 수역 내에서의 각 전재시마다, 그리고 협약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각 전재시마다 본 조치 제1부속서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된 WCPFC 전재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조치가 요하는 경우에는 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룡싱 629호가 위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중국 당국 또한 6항이 명시하고 있는 기국으로서 자국 선박을 규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sup>20</sup> 환적 보고 내용 중 상어 혹은 상어지느러미의 환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룡싱 629호가 비보고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국으로서 선박들이 비보고 환적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한, 룡싱 629호의 환적 행위가 CMM 2009-06 34항에 따라 공해상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34항은 협약국이 지침에 따라 ‘협약국 책임하의 어선이 공해상 환적을 하지 않고서는 조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고, 위원회에 위 사항을 알렸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승어선의 공해상 환적을 금하고 있다. 룡싱의 전제 행위가 공해에서 이뤄졌다면 적절한 결정 및 위원회 보고 절차 후에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4. WCPFC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안 2018-01 (Resolution 2018-01)

WCPFC 결의안은 법적 구속성이 없으나 정치적 무게와 중요성을 지니는 바, 협약국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룡싱 629호는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WCPFC 결의안 2018-01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가령 룡싱 629호는 2항이 명시한 국제적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어선원 근로조건을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sup>21</sup> 또한, 중국은 4항이 제시한 바와 같이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국으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어선원 인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22</sup>

### 3.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룡싱 629호는 백상아리(*Carcharodon carcharia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홍살귀상어(*Sphyrna lewini*), 범고래불이(*Pseudorca crassidens*)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 2부속서에 등재된 보호종을 어획하였다. 상어종은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투기하였고 범고래불이는 주요 부위를 잘라 선상에서 취식하였다. 중국은 CITES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보호종을 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 요구된다.<sup>23</sup>

가령 룡싱 629호가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공해상에서 보호종을 어획하여 반입하였다면 CITES 4조 6

---

고서를 위원회장에 보고해야한다.

20 CMM 2009-06 6항: 기국은 공해상 조업하는 기국 선박이 본 CMM을 따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협약국은 기국 선박이 본 CMM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 결의안 2018-01 2항: 협약국은 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기국 어선에서 근로하는 모든 어선원에 공정한 근로 조건이 제공 되도록,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어선원에 대한 국제적 최소기준과 일관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특히: a) 건강과 복지에 최소한의 위험을 갖는 안전한 근로 환경 확보 b) 피고용자가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피고용자에게 제공된 서면 계약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명시된 공정한 고용 조건 c) 선상에서의 양질의(decent) 근로 및 생계 조건: 신선한 식수와 식량을 충분히 제공, 조업 중 안전 보호 및 의료 치료, 수용할 수 있는 위생 기준 등 d) 선원에 대한 양질의, 정기적 보수와 적절한 보험 제공 e) 어선원이 배에서 하선할 기회와, 자격이 될 경우, 승환 요청 기회를 제공.

22 결의안 2018-01 4항: 협약국은 기국 어선에 대한 실질적 관할권과 통제를 적용하고, 적합한 경우, 이를 강화하며, 어선상 근로 조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개선,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일 것을 장려한다.

23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 4조: 멸종위기종 수출입 담당 국가 관리 당국은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CITES를 이행하며 본 조례의 조항에 따라 국무원 특별 보호 하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부한다.



항 24 및 해상반입결의안 a항<sup>25</sup> 위반 행위이다. 해상반입결의안 b항에 따라 공해상에서 어획한 보호종을 제3국으로 운송한 경우 사전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sup>26</sup> 룡싱 629호가 공해상 보호종 어획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 허가 절차를 밟았던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 바, 이와 같은 CITES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요구된다.

### 3.6. WHO-ILO-IMO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IMGS)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가 함께 발간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선박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지침이다.

룡싱 629호의 선장은 IMGS의 지침을 위반하고 시신들을 바다에 수장하였다. 지침은 갑작스럽거나 사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위로 사망한 시신에 대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고, 부검을 위해 시신을 보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에만 시신을 바다에 수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학적 자문을 받아 그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시신에 대해 빈틈없는 조사 내용과 함께 기록해야 한다.<sup>27</sup> 룡싱 629호에서 시신이 처리될 때, 이러한 지침은 전혀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및 권고사항

룡싱 629호의 국제 협약 위반 행위는 국제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수호해 온 지속가능성 및 인권존중 등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본 선박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 운송 및 거래한 정황이 파악된다. 또한 선원들은 식수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고강도의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협약이 담고 있는,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기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중국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실천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IUU 어업 근절 목표를 선언한 중국 정부, 협약 위반이 발생한 WCPFC와 CITES 등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업과 인권 보호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부 및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이 적절한 제재 조치와 책임 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이는 국제사회로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인류 공동 자원인 원양어장을 파괴하고 있는 무책임한 어업 문제를 다룰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24 CITES 4조 6항: 제 2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해상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국 관리 당국의 허가증 사전 발부가 요구된다.

25 CITES 해상반입결의안 a항: 공해상에서 제 1 혹은 제 2 부속서에 포함된 종을 어획하여 선박이 등록된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 3조 5항 및 4조 6, 7항이 적용된다.

26 CITES 해상반입결의안 b항: 공해상에서 제 1 혹은 제 2 부속서에 포함된 종을 어획하여 제 3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3조 2, 3항 및 4조 2\*, 3, 4 항이 적용된다. (CITES 4조 2항: 제 2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허가증의 사전 발부 및 제시가 요구된다)

2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p. 334

으로서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산기구 및 다른 관련 기구들이 롱싱 629호의 IUU 어선목록 등재를 고려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특히, WCPFC는 보존관리조치 2019-07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롱싱 629호가 3항 c, f, i<sup>28</sup>에 해당되는 IUU어선임을 확인하고, 롱싱 629호를 IUU 어선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또한, WCPFC는 관할 수역내에서 어선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2018-01)을 법적 효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로 격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기국이 자국의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 부록: APIL's Note on Long Xing 629 Case

(Updated 13 May 2020)

Jong Chul Kim

After 26 April 2020,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donesian crew members, who had worked onboard Longxing 629 owned by Dalian Ocean Fishing Co., Ltd. This note is a living document based on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s with the crew members. The interviewed crew members returned to Indonesia on 8 May 2020 after having been in quarantine for 14-days at Ramada Hotel near Busan Railway Station starting from 23 April 2020, when they had been allowed to enter.<sup>29</sup>

On 14th February 2019, 22 Indonesian crew members including the interviewees came to Busan, Korea, boarded Longxing 629, a tuna longliner, and sailed on board the vessel to Samoa waters for catching tunas.<sup>30</sup> After starting to work on Longxing 629, they experienced the deaths of four colleague fishers, were subjec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ing human trafficking, and were exploited to commit IUU fishing including shark finning.

### Three deaths

While they were operating in waters near Samoa, three Indonesian crew members (Sepri, Alfatah and Ari) died of unknown illness after showing the same symptoms, some of which were swelling, chest pain, and breathing difficulties. The symptoms for Sepri and Alfatah persisted for more than 45 days, and in the case of Ari for about 17 days. The captain just fed them a large amount of unknown medicines ignoring requests by the crew members to take them to a hospital in Samoa. Sepri died onboard Longxing 629 and the other two, Alfatah and Ari died on its sister vessels, respectively Longxing 802<sup>31</sup> and Tian Yu 8<sup>32</sup> to which they have been transferred. Even though there were persistent requests by the crew to preserve the dead bodies in refrigeration based on their contract, the captains abandoned them at sea.<sup>33</sup> The following are the dates and vessels relating to their deaths and abandonment (Table 1).

---

28 CMM 2019-07 3항: c. WCPFC의 조치가 정하는 방식대로 어획량 기록과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f. WCPFC 보존조치에 반하는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한 경우, i. WCPF 협약과 WCPFC 보존조치 조항들에 반하는 어업 행위에 가담한 경우

29 Tian Yu 8 and Long Xing 605 carrying the Indonesian crews including the interviewees had come to waters near Busan in 14 April 2020, but the crew of long Xing 629 were allowed to enter Korea 10 days later.

30 Two Indonesian crews returned to Indonesia in March 2019 after being transferred to Long Xing 630.

31 The other two Indonesian crews in Long Xing 629 were transferred to the Long Xing 802 in 27 December 2019 along with Alfatah and returned to Indonesia.

32 The other two Indonesian crews in Long Xing 629 were transferred to the Long Xing 802 in 27 December 2019 along with Alfatah and returned to Indonesia.

33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dfchK20WNuE&feature=emb\\_logo](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dfchK20WNuE&feature=emb_logo) (accessed on 2020.06.29)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and date of abandonment of deceased crew members**

Names	Sepri	M Muh Alfatah	Ari
Date of Death	2019. 12. 21.	2019. 12. 27.	2020. 3. 30.
Place of Death (vessel)	Longxing 629	Longxing 802	Tian Yu 8
Date of Abandonment	2019. 12. 21.	2019. 12. 27.	2020. 3. 30.

## Human Trafficking

Besides the threat of death from unknown diseases, the Indonesian crew members were also subjected to human rights/labor rights violations constituting human trafficking as follows.

\*Working hours: They had to work 18 hours a day, sometimes for two days in a row without rest.

\*Remaining at sea for 13 months: They did not have a port call while operating. The crew members stated that Longxing 629 was provided food and fuel/oil approximately 5 times by 4 different tanker vessels one of which is Angel No.1 (IMO 9434709, Fig. 2) owned by Winson Group<sup>34</sup>. And as for the fish transport, there were at least 4 transshipments by 4 different carrier vessels two of which were Lady Tuna (Panama flag IMO: 9453418, Fig. 3) and Sei Yu (S. Korea flag)<sup>35</sup>.



**Fig. 2: Angel No.1 (IMO 9434709)**



**Fig. 3: Lady Tuna, call sign 3EQEX (IMO 9453418)**

<sup>34</sup> [http://www.winsonoil.com/vessels\\_2.asp](http://www.winsonoil.com/vessels_2.asp) (accessed on 2020.06.29)

<sup>35</sup> One of the crews remembered Sei Yu as the name of fish carrier vessel when he read the list of vessels in [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flag=Korea+%28Republic+of%29&field\\_vessel\\_submitted\\_by\\_ccm\\_value=All&type=FISH+CARRIER&name=&ircs=&win=&vid=&imo=&auth\\_tranship\\_hs=All&fishing\\_methods=All](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flag=Korea+%28Republic+of%29&field_vessel_submitted_by_ccm_value=All&type=FISH+CARRIER&name=&ircs=&win=&vid=&imo=&auth_tranship_hs=All&fishing_methods=All) (accessed on 2020.06.29)

\*Drinking salty water: They drank salty water converted from sea water while their Chinese counterparts drank bottled water. The crew members claimed that drinking the salty water made their colleagues sick leading to death.

\*Food: Their main food was rice and fish which was also used as bait or lures. Chicken was served for every dinner only during the period of tuna operation from February to September. Frozen vegetables were provided twice a month (Fig. 4).



**Fig. 4: Food the Indonesian crews were provided in Longxing 629**

\*Verbal and physical abuses: Verbal abuse was everyday experience to the crews. At least 5 crew members were subjected to physical violence by the vice-captain<sup>36</sup> and a Chinese senior crew. Crew members were struck on either the back or the head for the reason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at they were saying.

\*Passport confiscation: The captain of Longxing 629 confiscated all passports of crew members immediately after they got on board. Even after they landed in Busan on 23 May 2020, a Korean manning agency kept their passports while they were in quarantine.

\*Wage withholding, deductions, and non-payment: Crew members' monthly wages were between USD 300 and USD 450, of which half was deducted as a recruitment fee<sup>37</sup> and withheld as a security deposit. Most of the other half was rarely paid (refer to Table 2).

\*Toilet and bathroom: There are 2 toilets and 2 bathrooms in Longxing 629. Since one toilet and one bathroom were dedicated only to the captain, 22 Indonesian crew members and about 6 Chinese crew members had to share one toilet. Because the Indonesian crew members were not allowed to use bathroom, they took shower on the deck with seawater and distilled but still dirty water.

---

<sup>36</sup> The vice-captain went to China being transferred to Tian Yu 8 in December 2019.

<sup>37</sup> These are 4 recruitment agencies in Indonesia which recruited the crews: 1. Pt. Lakemba Perkasa Bahari (5 crews including the late Pasaribu Efendi), 2. Pt. Alfira (8 crew including the late Alfirah), 3. Pt. Sinar Muara Gemilang (6 crew), 4. Pt. PT Karunia Bahari Samudera (3 crew including the late Sepri and the late Ari). And reportedly the last three recruitment agencies placed the crews to Long Xing 629 through a Chinese manning agency in Fiji, Orient Commercial and Trade Co., Ltd.

**Table 2: Information on wage withholding, deduction, and non-payment of wages**

Crew member	Date of birth	Recruitment agency	Monthly wage	Service fee deducted out of wage	Security deposit out of wages <sup>38</sup>	Insurance fee to be deducted out of wage	Wages paid for 13 months	Paid rate <sup>39</sup>
#1	1992 Nov. 11	PT. LAKEMBA PERKASA BAHARI	\$400	\$500	\$800		\$2,150	41.3%
#2	1999 Jan. 10	PT. LAKEMBA PERKASA BAHARI	\$300	\$850	\$800		\$800	20.5%
#3	2000 Nov. 04	PT. LAKEMBA PERKASA BAHARI	\$300	\$300	\$800		\$800	20.5%
#4	1999 Aug. 02	PT. LAKEMBA PERKASA BAHARI	\$300	\$850	\$800		\$800	20.5%
#5	2000 Mar. 29	PT. Alfira Perdana Jaya	\$300	\$1,145	\$1,000	\$140	\$120	3.1%
#6	1999 Sept. 17	PT. Alfira Perdana Jaya	\$300	\$1,145	\$1,000	\$140	\$120	3.1%
#7	1999 Nov. 27	PT. Alfira Perdana Jaya	\$300	\$1,145	\$1,000	\$140	\$120	3.1%
#8	1998 Jan. 25	PT. Alfira Perdana Jaya	\$300	\$1,145	\$1,000	\$140	\$120	3.1%
#9	2000 Aug. 06	PT. Alfira Perdana Jaya	\$300	\$1,145	\$1,000	\$140	\$120	3.1%
#10	1999 Mar. 02	PT. Sinar Muara Gemilang	\$300	\$750	\$900		\$300	7.7%
#11	1995 Sept. 09	PT. Sinar Muara Gemilang	\$450	\$600	\$900		\$650	11.1%
#12	1999 Aug. 23	PT. Sinar Muara Gemilang	\$300	\$750	\$900		\$300	7.7%
#13	1985 July 31	PT. Sinar Muara Gemilang	\$300	\$750	\$900		\$300	7.7%
#14	1998 Dec. 02	PT. Sinar Muara Gemilang	\$300	\$750	\$900		\$300	7.7%

<sup>38</sup> As long as crew completes the term of a contract, security deposit is to be paid upon returning to Indonesia from recruitment agency.

<sup>39</sup> Paid rate = [Wages paid for 13 months / (Monthly wage \* 13)] \* 100 (%)



## IUU including shark finning

Shark finning has been prevalent not only in Longxing 629, but also in other at least 11 sister vessels including Longxing 806, Longxing 805, Longxing 630, Longxing 802, Longxing 605, Longxing 607, Longxing 608 and Tian Yu 8, all of which are owned by Dalian Ocean Fishing Co., Ltd. Interviewees stated that they have specific fishing rods (gears) for catching sharks with which they were catching more than 20 sharks a day. From September to February, they were only catching sharks rather than tuna. The crews were ordered to move shark fins from one vessel to another by small boats when the vessel was supposed to go to port.

Processing the sharks, which includes finning, drying, packaging and fridge storing is their everyday task. Interviewees estimated that when they left Longxing, they found at least 16 boxes (each box containing 45 kg) full of shark fins. One of the interviewees reported having experience in moving shark fins from one vessel to another using small boats whenever sister vessels were scheduled to go to port.

And they also caught what seems to be endangered species. Crew members reported that when a whale was caught, Chinese crew members killed it to extract brain and genitals. Below are photos of sea animals taken by the crew members.



**Fig. 5: Shortfin Mako Shark caught by Longxing 629**



**Fig. 6: Scalloped Hammerhead Shark caught by Longxing 629**



**Fig. 7: White Shark caught by Longxing 629**





**Fig. 8: False Killer Whale caught by Longxing 629**



**Fig. 9: Shark's fins on Longxing 629**



**Fig. 10: Shark's fins being dried on Longxing 629**

### Another death in Busan

Along with other crew members, Tian Yu 8 and Longxing 605 carrying 9 and 6 Indonesian crew members respectively who previously worked on Longxing 629 arrived in Busan, Korea on 14 April 2020. But even though they entered Korean territorial seas, they could not enter Busan port for 10 days as Korean Immigration authorities did not allow them to disembark. While many of crew members should have stayed in those two vessels, 27 Indonesian fishers were allowed to enter Korea on 23 April 2020<sup>40</sup>, out of which 11 crew members flew back to Indonesia and the remainder, 15 crew members, who had previously worked on Longxing 629 were sent to the Ramada Hotel for a 14-day quarantine with facilitation by a Korean manning agency, Fisco Marine<sup>41</sup> (see the next page, Table 3).

While the crew members were in quarantine at the hotel, Pasaribu Efendi died on 27 April 2020. Even though he showed the same symptoms as those of the late Ari, Alfatah and Sepri from February 2020 on board Tian Yu 8 en route to Busan, he was not transferred to a hospital even after he entered Korea on 23 April 2020. Pasaribu Efendi was sent to an emergency room of Busan medical Center<sup>42</sup> at 17:30 on 26 April 2020, but he died at 06:00 the next day.

The crew members returned to Indonesia on 8 May 2020 and the late Pasaribu Efendi was buried on 12 May 2020 without an autopsy which should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sup>43</sup>.

<sup>40</sup> While Long Xing 605 is sailing within Korean territorial sea as of 29 April 2020, Tina Yu 8 already returned to China in 24 April 2020.

<sup>41</sup> +82-51-253-8899

<sup>42</sup> The hospital did not find any virus from the dead body and decided not to do an autopsy on the corpse.

<sup>43</sup> <https://www.youtube.com/watch?v=G5tiukEAlHk&feature=youtu.be> (accessed on 2020.06.29)

**Table 3: Movements of the crew in Longxing 629, Longxing 604, Longxing 605, Tian Yu 8, Tian Xiang 8, Tian Xiang 16, and Tian Xiang 606**

Crews/vessels		Tian Yu 8	Longxing 605	Note
Chinese Crews		12	9	They stayed in the vessels as of 24 April 2020.
Indonesian Crews	Employed for Tian Yu 8 and Longxing 604 from the beginning	3	10	They entered Korean in 24 April 2020 and flew back to Indonesia but two of them onboard Longxing 605 whose passport were expired stayed in the vessel then.
	Transferred from sister vessels, Tian Xiang 8	7	1	They stayed in the vessels as of 24 April 2020.
	Transferred from sister vessels, Tian Xiang 16	0	1	
	Transferred from sister vessels, Tian Xiang 606	1	8	
	Transferred from sister vessels, Longxing 629	9	6	They entered Korea 24 April 2020 and are in quarantine at a hotel. One member died 27 April 2020.
Total		32	35	